

과잉간섭 양육방식이 휴대 전화의존도에 미치는 영향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우재희
부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The effect of over-control parenting styles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mobile phone dependency -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Jea-Hee Woo

Division of Social Welfare, Catholic University of Busan

요약 본 논문은 과잉간섭 양육방식이 휴대전화의존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했다. 연구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 2015년 초등학교 4학년 패널 5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자료는 AMOS를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델을 분석하였고, 매개효과의 유의성은 AMOS의 bootstrapping 검증으로 실행하였다. 연구결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잉간섭 양육방식과 우울, 우울과 휴대전화의존도, 과잉간섭 양육방식과 휴대전화의존도의 경로를 검증한 결과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과잉간섭 양육방식이 휴대전화의존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울의 매개효과를 성별, 지역, 교급을 통제한 상황에서 검증한 결과, 우울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동이 휴대전화에 의존되는 과정에 부모의 과잉간섭 양육방식이 중요한 원인 변인으로 작용함을 인지해야 하고, 부모의 과잉간섭 양육방식으로 인한 아동의 우울감정을 휴대전화의존 전 단계에서부터 다루어야 하는 중요 변인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가정환경, 가족관계는 휴대전화 예방 뿐 아니라 아동이 독립된 성인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기본 근간이 되는 바탕이 됨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부모로부터 과잉간섭 양육방식을 받은 아동의 휴대전화의존도 문제에 대한 개입을 위한 실천적 논의가 진행되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over-control parenting styles and mobile phone dependency among children. The 5th-year longitudinal data from the 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 (KCYPS) were collected from 4th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data were analyzed by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bootstrapp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re is a positive path from over-control parenting styles to depression, from depression to mobile phone dependency, and from over-control parenting styles to mobile phone dependency. Second, depression had a mediating effect on the association between over-control parenting styles and mobile phone dependency. Based on these results, more study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reliance on cell phones is needed.

Keywords : Depression, Mobile phone dependency, Mediating effect, Over-control parenting styles

1. 서론

휴대전화의 심리적 역기능 중 대표적인 것이 휴대전

화 의존인데 지나치게 많은 시간동안 휴대전화를 이용하며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않을 때 불안, 초조, 고립감을 느끼는 심리적 상태를 말한다[1]. 또한

본 논문은 2016년도 부산가톨릭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Jea-Hee Woo (Catholic University of Busan)

Tel: +82-51-510-0683 email: jhwoo@cup.ac.kr

Received July 13, 2017

Revised (1st August 9, 2017, 2nd August 16, 2017)

Accepted August 17, 2017

Published August 31, 2017

휴대전화 사용에 지나치게 의지하는 것, 특히 사회적 관계 유지에 휴대전화를 지나치게 사용하고, 휴대전화의 역할에 의지하는 것으로 정의한다[2]. [3]은 휴대전화의존을 통제력을 잃고 휴대전화 사용에 몰입하여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상태라고 했다. 휴대전화 의존적 사용은 현대사회의 대표적 기술 중독(technology addiction)의 한 유형으로 병리적 개념이 아닌 행동적 중독의 개념이다[4]. 한국 정보화진흥원의 조사에 의하면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의 비율은 29.2%로 성인 중독위험군 비율인 11.3%보다 훨씬 더 높다고 보고되었다[5].

2014년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조사에 의하면 특히 초등학교생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2014년 4~5월 동안 초, 중, 고등학생 141만 명을 조사한 결과, 아동과 청소년 전체의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은 전년 대비 24% 줄었으나 유일하게 초등학교생의 위험군 비율이 전년 대비 27% 증가하였다[6].

초등학교생의 우울은 발견하고 치료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지속되거나 방치될 경우 청소년기와 성인기 이후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등학교생 아동은 중요하게 개입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대상이다[7, 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생 아동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57]의 연구에서는 2015년 학령 초기 아동의 휴대전화 중독 정도를 살펴본 결과 휴대전화 중독 정도는 36.17 ± 14.21 점이었다. 일반 사용군이 141명(86.5%)으로 평균 31.79 ± 8.98 점, 위험 사용군이 15명(9.2%)으로 평균 59.27 ± 3.28 점, 고위험 사용군이 7명(4.3%)으로 평균 74.71 ± 5.47 점이었다. 즉, 학령 초기 아동은 일반 사용군과 위험 사용군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어 중독 위험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가정은 아동이 전면적이고 장기적인 접촉을 통해 학습 습관의 형성에 기여하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환경이다.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휴대전화의 이용 양상과 정도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9].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가족의 기능 또한 달라지는데 이에 따라 스마트폰 사용이 달라진다고 했다[63].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태도는 자녀로 하여금 휴대전화라는 심리적, 정서적 도피처를 찾아 그곳에서 만족과 휴식 그리고 지지를 얻게 만들며, 그 때문에 자녀는 휴대전화에 더 의존하게 된다[10]. 휴대전화의존도와 부모의 양육태도 관련한 연구는 지금까지 많이 연구되어져

왔고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태도 및 행동인 포괄적인 개념이다[11, 12, 13]. 본 연구는 일반적인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 개념으로 접근하기보다 아동의 휴대전화 의존에 있어 과잉간섭의 부정적 양육태도를 포함하는 가정환경, 양육태도의 중요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부모가 민주적, 자율적, 수용적일수록 자녀의 휴대전화 의존이 낮은 반면, 통제적, 요구적, 거부적인 경우 휴대전화 의존이 더 높게 나타난다. 특히 초등학교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휴대전화 의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타났는데 [14]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애정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휴대전화 의존도가 더 낮은 반면 부모의 과잉간섭이 높을수록 휴대전화 의존도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의 과잉간섭은 휴대전화 의존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어머니의 과보호가 스마트폰 중독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5]. [16]의 연구에서는 과잉간섭과 같은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을 더 높게 지각할수록 휴대전화의존도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과잉간섭 양육방식 형태일수록 휴대전화의존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우울과 휴대전화의존도에 관련한 연구로는 [17, 18, 19]등이 있다. 지금까지 휴대전화 의존적 사용의 주요한 원인 및 결과 변수로 우울에 대한 연구가 많이 논의되어져 왔는데 국내 아동의 휴대전화 의존적 사용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변수이다. 휴대전화의존도와 우울의 변수를 살펴본 연구들은 대부분 아동을 중심으로 휴대전화의존도의 원인 변수로 주로 살펴본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20]. 초등학교생은 휴대전화를 처음 접하게 되면서 통제력이 미약하기 때문에 연구의 대상으로 주목할 만하다. [21]의 연구에서는 10~12세의 연령대가 게임 등의 매체 중독으로 이어질 확률이 가장 크고, 휴대전화 과다사용에 대한 부적 영향력이 성인보다 아동에게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울이 휴대전화 의존적 사용의 원인이라는 결과는 국내 연구 외에도 국외의 여러 연구에서도 밝혀졌다[22, 23, 24]. 지금까지 휴대전화의존도와 관련하여 부모의 과잉간섭 변인을 원인변수로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와 우울을 매개로한 연구는 드물다. 부모의 관심과 지지가 지나치게 되는 것으로 표현되어진 과잉간섭은 또 다른 역기능적인 결과를 초래하므로 특히 우리나라 사회에서 주목해야 할 요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동안 휴대전화의존도와 관련한 과잉간섭 양육방식, 우울의 단선적인 연구에서 발전시켜 우울을 매개로 과잉간섭 양육방식으로 인한 휴대전화의존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함으로써 초등학생의 휴대전화의존의 예방적 차원에 시사하는 바를 제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이론적, 실천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과잉간섭양육방식과 우울의 관계는 어떠한가?
2. 과잉간섭양육방식과 휴대전화의존도의 관계는 어떠한가?
3. 우울과 휴대전화의존도의 관계는 어떠한가?
4. 우울은 과잉간섭양육방식과 휴대전화의존도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2. 이론적 배경

2.1 과잉간섭 양육방식과 휴대전화의존도

휴대전화의 보급률은 초등학생이 85.8%, 중학생이 93.2%, 고등학생이 94.8%으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사용연령은 하향화 되는 추세이다[58]. 휴대전화를 과다 이용하거나 휴대전화 이용에 의존적인 경향을 보이는 초등학생들이 급증하여 휴대전화 이용으로 인한 다양한 부정적인 기능들이 증가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59].

초등학생의 휴대전화 의존에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환경적 요인으로 부모양육태도가 부각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부모의 과잉간섭이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38, 44]. 부모양육태도는 양육과정에서 자녀에 의해 직접 관찰되고 경험되어짐으로써 형성되어지는 것으로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실제 부모의 양육태도 보다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게 지각된다[62] 그 중 과잉간섭은 과보호의 대표적 요인으로 과도한 통제와 간섭으로 자녀의 문제행동과 정신건강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29]. 특히 초등학생은 자신의 목표와 방법을 부모가 대신 선택하거나 스스로 할 수 있는 일까지 일일이 간섭한다고 지각하게 되면 자율성과 삶에 대한 책임감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30]. [31]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이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 중 지나친 통제를 더 높게 지각할수록 자율성, 유능감 및 관계성을 충족시키는 내재적 동기가 낮아진다고

했다.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이고 통제적일수록 휴대전화 의존이 높고[32], 부모의 감독과 통제가 심할수록 휴대전화 의존적 사용이 높게 나타난다[31]. 부모의 과잉간섭 양육방식이 휴대전화의존도에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휴대전화 의존과 부모의 양육방식을 살펴본 연구는 있어 왔으나 부모의 양육방식 중 과잉간섭 양육방식과 휴대전화의존도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잉간섭의 양육방식을 초점으로 하여 휴대전화의존도와와의 구조적 관련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2.2 우울과 휴대전화의존도

휴대전화의존 현상의 강력한 영향요인으로 우울을 꼽을 수 있다. 즉, 우울은 휴대전화 의존 집단에서 많이 나타나는 특성이며 유의한 영향요인이 된다[33, 34, 35, 36, 37]. 이처럼 우울은 많은 선행연구에서 휴대전화 의존의 대표적인 예측변인이다.

우울경향이 있는 아동은 대인관계가 줄어들고 사회적 고립이 증가하면서 우울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휴대전화 사용에 의존하게 된다[38, 39]. 우울한 아동들이 그들의 외로움과 심리적 위축감을 보상하기 위해 휴대폰 사용에 집착하게 된다[40]. 이처럼 우울은 휴대전화 의존과 유의한 관련성을 맺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러 선행연구에서 검증되었다. [41]의 연구에 따르면 휴대전화의 의존적 사용을 예측하는 변인 중 우울의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특히 10대는 20-30대에 비해 우울이 휴대전화 중독을 예측하는 효과가 더 두드러진다는 사실이 보고되었다. [2, 42, 43]의 연구에서는 우울이 인터넷 의존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7]은 자기 통제력과 우울, 자기효능감이 휴대전화 중독을 예측하는 심리적 변인이라고 분석했다. [44]의 연구에서는 우울이 휴대전화 의존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5]의 연구에서 우울은 휴대전화 중독의 고·저 위험집단을 정확하게 판별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46]의 연구에서는 우울은 휴대전화 의존에 대한 설명력이 가장 큰 변수로 나타났다. [47]의 연구에서도 우울은 휴대전화 의존의 원인이 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함을 증명하였다. [48]의 연구에서는 우울이 휴대전화 과다 사용이나 중독적 사용을 설명하는 가장 예측력이 높은 변수로 확인되었다. 우울경향이 높은 아동

은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1.7배 휴대전화 사용이 많다는 것이 밝혀졌다[49].

2.3 과잉간섭 양육방식과 휴대전화 의존도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우울은 스트레스나 긴장에 대한 반응으로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나 긴장을 회피하려는 심리적 대처 전략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서적 반응이다[50].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에서 과잉간섭 양육방식이 휴대전화의존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 우울이 휴대전화의존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고려할 경우 이 세 변수 사이의 순차적 영향력을 가정할 수 있다[51]. 선행연구에서는 과잉간섭 양육방식과 휴대전화의존도, 우울과 휴대전화의존도의 단선적 관계를 밝혀낸 연구결과들은 많이 있었으나 과잉간섭 양육방식과 휴대전화의존도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연구는 드물다. 본 연구의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과잉간섭 양육방식이 휴대전화의존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와 우울이 휴대전화의존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세 변수와의 관련성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우울이 휴대전화의존도의 매개변수로 작용한 선행 연구가 드문 관계로 선행 연구 중 독립변수는 다르지만 휴대전화 의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 중 우울이 매개효과를 나타낸 연구를 참고로 하여 우울의 매개효과로서의 추측할 수 있는 변인임을 살펴보았다. [52]의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또래애착이 휴대전화 의존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이 유의한 매개변수로 나타났음을 증명하였다. [2, 17, 34]의 선행연구에서도 우울이 휴대전화의존도를 높이는 매개변수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53]의 연구에서도 우울이 휴대전화 몰입에 완전매개 요인임을 밝혔다. 본 연구는 초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과잉간섭 양육방식이 휴대전화의존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며 특히 이 두 변수 사이에서 우울이 매개효과를 갖는지 검증함으로써 초등학생의 휴대전화의존 문제에 효과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이론적, 실천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주관하여 실시한 한국 아동, 청소년 패널조사(KCYPS) 자료 중 2014년 5차년도 초등학교 4학년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한국 아동, 청소년 패널은 2010년을 기준으로 매년 1회씩 학령기 전반에 있어서의 아동, 청소년 성장 및 발달의 다양한 영역과 환경체계를 포함하는 개인발달(신체, 지적, 사회 및 정서)과 발달환경(가정, 또래, 교육, 지역사회, 매체)의 영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자료이다. 이 자료는 층화다단계집락표집으로 표집된 학교와 학급으로 학교방문을 통한 집단면접조사가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한국 아동, 청소년 패널 조사 초등학교 4학년 5차년도 자료가 활용되었고 총 2,070명 (남자 1,089명, 여자 981명)이었다.

3.2 측정도구

3.2.1 과잉간섭 양육방식

과잉간섭 양육방식은 부모양육태도검사[54]를 양육방식으로 재구성한 4문항을 사용하였다. 4점 척도로 구성되어 1점 ‘매우 그렇다’에서 4점 ‘전혀 그렇지 않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변인의 경향도 높은 정도로 해석한다. 구체적인 문항은 ‘부모님께서 작은 일에 대해서도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신다.’, ‘부모님께서 내가 원하는 일을 못 하게 하실 때가 많다.’, ‘보통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도 불안해하시며 내게는 못하게 하신다’, ‘나에게 무엇을 하든지 항상 이겨야 한다는 걸 강조하신다’의 총 4문항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75이었다.

3.2.2 휴대전화의존도

한국아동, 청소년 패널은 [55]의 연구를 참고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문항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하다.’, ‘휴대전화로 한참 동안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불안하다.’, ‘휴대전화 없으면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혼자 있을 때 휴대전화 없으면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다’,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보내게 된다’, 휴대전화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휴대전화 없으면 불편해서 살 수 없다’로 총 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의 척도는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3점 ‘그런 편이다’, 4점 ‘매우 그렇다’인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휴대전화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87이었다.

3.2.3 우울

우울은 [56]이 개발한 간이정신진단 우울검사를 수정, 보완하여 총 10문항으로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모든 일이 힘들다.’ 등 10문항으로 4점 측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1점 ‘매우 그렇다’에서 4점 ‘전혀 그렇지 않다’인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이 심한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89이었다.

3.2.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는 SPSS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기술통계치와 측정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을 측정하였고, 과잉간섭 양육방식과 휴대전화의존도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역할을 알아보기 위해서 AMOS를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델을 분석하였다. 매개효과의 유의성은 AMOS의 bootstrapping검증으로 실행하였다.

4. 연구결과

4.1 연구모형의 적합도

<Table 1>과 같이 공분산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알아본 결과, $\chi^2=8.950$, $p=.05$, $RMSEA=.033$, $NFI=.930$, $CFI=.937$, $GFI=.938$, $AGFI=.918$, $TLI=.926$ 으로 분석되어 구조방정식의 모형은 검증되었다. $RMSEA$ 는 .05 이하, NFI , CFI , GFI , TLI 는 .90 이상이면 적합하다(Hu와 Bentler, 1999).

Table 1. Model fit indices

χ^2	RMSEA	NFI	CFI	GFI	AGFI	TLI
8.950	.033	.930	.937	.938	.918	.926

*** $p<.05$

4.2 확인적 요인분석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을 위한 선행 작업으로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Fig.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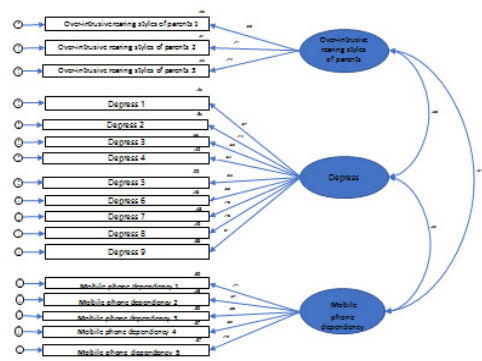


Fig. 1.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적합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명력(SMC)이 상대적으로 낮은 문항을 제거하였다. 전체 21 문항 중에서 과잉간섭 4문항 중 1문항(과잉간섭2)을 제거 후 3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우울 9문항 중 1문항(우울5)을 제거 후 10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의존도 7문항 중 2문항(의존도 1, 의존도4)을 제거 후 5문항을 사용한 확인적 요인분석의 초기와 최종 모델을 선택하였다.

Table 2.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 result

	Estimate	Standard Estimate	S.E.	SMC	AVE	CR
over-control parenting style 3	1	0.743	-	.553	.943	.980
over-control parenting style 2	0.968	0.712	0.045	.508		
over-control parenting style 1	0.819	0.598	0.04	.358		
Depression 9	1	0.806	-	.650	.951	.994
Depression 8	0.935	0.702	0.028	.493		
Depression 7	0.796	0.696	0.024	.484		
Depression 6	0.945	0.678	0.03	.460		
Depression 5	0.876	0.625	0.03	.391		
Depression 4	0.69	0.645	0.023	.416		
Depression 3	0.971	0.624	0.034	.390		
Depression 2	0.925	0.742	0.026	.550		
Depression 1	0.822	0.669	0.026	.448		
Mobile phone dependenc 5	1	0.793	-	.629	.968	.993
Mobile phone dependenc 4	0.914	0.821	0.024	.673		
Mobile phone dependenc 3	0.953	0.797	0.025	.635		
Mobile phone dependenc 2	0.718	0.673	0.023	.453		
Mobile phone dependenc 1	0.941	0.774	0.026	.600		

또한, <Table 2>에서 제시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표준화된 요인적재치(Standard Estimate)가 모두 0.30이상으로 나타났으며, t값도 1.96보다 커 유의하게 나타났다. 판별타당성과 집중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구성개념신뢰도(CR: Construct Reliability)와 평균분산추출지수(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를 계산하였다. 구성개념신뢰도는 잠재변수를 구성하는 측정변수의 내적일관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CR>.70이면 적합하다고 보며(Hair et al. 2006), 본 연구에서는 0.98이상으로 나타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분산추출지수는 잠재변수에 대해 측정변수가 설명할 수 있는 분산의 크기를 나타낸 것으로 AVE>.50이 되어야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본다(Fornell & Larcker, 1981). 분석결과 0.94이상으로 나타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별타당성은 AVE가 잠재변수간 상관계수의 제곱 보다 AVE값이 크면 판별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배병렬, 2009)해 상관계수 값이 가장 큰 0.315의 제곱(0.099) 보다 가장 낮은 AVE값의 0.943이 크므로 판별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3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구조방정식모형<Figure 2>에 대한 적합지수를 분석한 결과 <Table 3>과 같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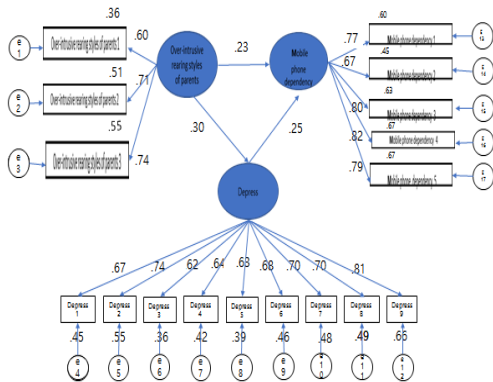


Fig. 2. Structural equation’s model : result

Table 3. Structural equation’s model fit indices

$\chi^2(p)$	1038.254(.000)
χ^2/df	8.950
RMR	.022
RMSEA	.063
GFI	.938

AGFI	.918
TLI	.926
NFI	.930
CFI	.937

$\chi^2=1038.254(df=116, p=.000)$ 로 나타났으며, 카이제곱값은 모델의 적합도 지수 중 유일하게 통계적 분포를 고려하는 지표이기는 하나, 이 검증의 검증력이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모델 전체의 적합도가 낮아진다고 확정적인 결론을 내리기 보다는 다른 적합도 지수들을 고려해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chi^2/df=8.950$, RMSEA=.063, RMR=.022, GFI=.938, AGFI=.918, TLI=.926, NFI=.930, CFI=.937로 구조방정식모델 분석에 적합하게 나타났다.

각 경로 간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Table 4>과 같이 나타났다. 과잉간섭 양육방식→우울($t=10.396, p<.001$), 우울→휴대전화의존도($t=9.459, p<.001$), 과잉간섭 양육방식→휴대전화의존도($t=8.031, p<.001$)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Table 4. Structural equation’s model : result

Path	Estimate	Standard Estimate	S.E.	t (CR)
Depression ← over-control parenting style	0.287	0.296	0.028	10.396***
Mobile phone dependenc ← Depression	0.290	0.247	0.031	9.459***
Mobile phone dependenc ← over-control parenting style	0.265	0.232	0.033	8.031***

*** p<0.001

4.4 매개효과 검증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Efron, 1972) 방법으로 직접효과를 검증한 결과 <Table 5>과 같이 나타났다. 직접효과에서는 $t=.232(p<.01)$ 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간접효과에서는 $t=.073(p<.01)$ 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Table 5. Bootstrapping test

Path	Gross effect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over-control parenting style → Depression→Mobile phone dependenc	.305**	.232**	.073**

**p<.01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연구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문제 1에 해당하는 과잉간섭양육방식과 우울의 관계는 경로의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과잉간섭양육방식이 심할수록 우울이 높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자주 경험할수록 우울을 더 자주 보인다는 연구결과[60, 부모의 통제적인 양육 행동은 우울 증상을 악화시킨다는 연구결과[61]와 일치한다.

둘째, 연구문제 2에 해당하는 과잉간섭양육방식과 휴대전화의존도의 관계는 경로의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과잉간섭양육방식이 심할수록 휴대전화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초등학생의 휴대전화의존도에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환경적 요인으로 부모의 과잉간섭양육태도가 중요한 위험요인이라는 연구결과[38, 44]와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이고 통제적일수록 휴대전화 의존이 높다는 연구결과[32]와도 일치한다.

셋째, 연구문제 3에 해당하는 우울과 휴대전화의존도의 관계는 경로의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이 높을수록 휴대전화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우울이 휴대전화 의존의 대표적인 예측변인으로 본 연구의 연구결과[33, 34, 35, 36, 37]와 일치한다.

넷째, 연구문제 4에 해당하는 우울은 과잉간섭양육방식과 휴대전화의존도의 관계를 매개하는 관계는 경로검증 결과 과잉간섭 양육방식이 우울을 거쳐 휴대전화의존도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크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태도는 자녀로 하여금 휴대전화라는 심리적, 정서적 도피처를 찾아 그곳에서 만족과 휴식 그리고 지지를 얻게 만들며, 그 때문에 자녀는 휴대전화에 더 의존하게 된다[52]는 연구결과와 과잉간섭과 같은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을 더 높게 지각할수록 휴대전화의존도와는 정적 상관을 보인다는 연구결과[16]와 일치한다. 또한, 우울이 휴대전화의존도를 높이는 매개변수의 역할을 하는 것을 밝힌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2, 17, 34].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성별, 지역, 교급을 통제한 상황에서 과잉간섭 양육방식이 휴대전화의존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우

울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하게 검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동이 휴대전화에 의존되는 과정에 부모의 과잉간섭 양육방식이 중요한 원인 변인으로 작용함을 인지해야 하고, 부모의 과잉간섭 양육방식으로 인한 아동의 우울감정을 휴대전화의존 전 단계에서부터 다루어야 하는 중요 변인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 문제를 다루는 실천 현장에서의 실천적 접근 과정에서 부모의 과잉간섭 양육방식과 우울의 선행변인을 고려해 부모의 과잉간섭 양육방식을 감소시키고, 우울수치를 감소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의 휴대전화의존도는 가정의 양육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아동의 우울이라는 내적감정이 작용하여 중독에 이른다라는 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 중독은 진행이 됨에 따라 그 심각성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아동의 휴대전화 의존도가 심각해지기 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가정환경, 가족관계, 아동의 내적감정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가족적 접근이 초등학교 때부터 필요함을 나타낸다. 더 나아가 가정환경, 가족관계는 휴대전화 예방뿐 아니라 아동이 독립된 성인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기본 근간이 되는 바탕이 됨을 인식할 때 건강한 아동 성장을 위해 중요한 요인이 됨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부모로부터 과잉간섭 양육방식을 받은 아동의 휴대전화의존도 문제에 대한 개입을 위한 논의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아동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한 가정환경 조성을 위해 부모교육, 예비부모교육, 아동과 함께하는 교육과정 등 아동의 교육에 가정이 함께 참여하는 대안들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또한, 아동의 휴대전화의존에 대한 실천적 접근인 상담과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가족 단위 특히 부모와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되어야 하겠다.

둘째, 아동의 휴대전화의존 문제에는 우울이라는 심리, 정서적 측면의 감정을 다룰 수 있는 실천적 개입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휴대전화의존도와 우울감정을 함께 다루는 심리, 정서적 상담과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아동이 자신의 감정 상태를 지각하고 감정의 근원을 인식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에 대한 이해를 통해 휴대전화 의존의 부정적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인지 행동적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아동의 우울수준을 낮춰 휴대전화의존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탐색과 개입이 필수적이다. 이것은 아동의 휴대전화의존에 대한 개입은 부모와의 관계회복이 휴대전화의존을 낮추는 선행 요건이 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안된 부모의 과잉간섭 양육방식과 우울의 내용을 포함하는 휴대전화 의존 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가 제시되어야 하겠다.

References

- [1] S. H. Lee, H. S. Kim, En, Y. Na, *A Study on the Use of Cell Phones and Their Influence on the Utilization of Youth*. Seoul, pp. 25-32, Samsung Life & Welfare Institute, 2002.
- [2] X. Lu, J. Watanabe, Q. Liu, M. Uji, M. Shono, T. Kitamura, "Internet and mobile phone text-messaging dependency: Factor structure and correlation with desphoric mood Japanese adult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vol. 27, pp. 1702-1709, 2011.
DOI: <https://doi.org/10.1016/j.chb.2011.02.009>
- [3] J. R. Han, G. H. Hur,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mobile phone addiction scale",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Studies*, vol. 48, no. 6 pp. 138-165, 2004.
- [4] M. Griffiths, "Internet addiction: Fact of fiction?", *Psychologist*, vol. 12, no. 5, pp. 246-251, 1999.
- [5] M. S. Gwon, K. W. Nam., B. K., Seo. Survey on Internet addiction, Future Science Division and Korea Information Technology Promotion Agency.
- [6] The Kukmin Daily, The number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who addicted to smartphones increased. 2014.
- [7] G. B. Han, "Effects of Perceived Childhood Parental Care and Overprotection on Depression of Female College Students: Mediating Roles of Self-Esteem and Dysfunctional Beliefs",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 26, no. 2, pp. 427-448, 2014.
- [8] K. Anhalt, T. L. Morris, "Parenting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anxiety and depression; A multivariate approach", *Early and Intensive Behavior Intervention*, vol. 5, no. 3, pp. 122-137, 2008.
DOI: <https://doi.org/10.1037/h0100427>
- [9] B. N. Kim, H. I. Choi, "Effects of Study Overprotective Parent's Raising Attitude on University Student's Smartphone-Addiction: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control", *Social Science Research Rview*, vol. 29 no. 1, pp. 1-25, 2013.
- [10] M. K. Kim, "Relationships on Parents' Authoritative Parenting Attitude, Adolescent's Emotional Bonding with Parents and Cellular Phone Addiction: The Mediating Effect of Impulsiveness", *Family Resource Management*, vol. 17, no. 2, pp. 1-8, 2013.
- [11] M. S. Jeong, "The Effect of Parent's Rearing Attitude and Peer Relation on Adolescent's Self-Esteem", *Youth Culture Forum*, vol. 25, pp. 140-170, 2010.
- [12] B. R. Youn, H. W. Jang, K. K. Kim,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parental socioeconomic status, academic support, parenting styles, participation in private education,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Educational Review*, vol. 19, no. 3, pp. 99-122, 2013.
- [13] S. Y. Kim, S. H. Hong, "Estimating adolescent's changes in mobile phone dependence: Testing for the effects of ecological factors on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changes", *Studies on Korean Youth*, vol. 25, no. 3, pp. 101-123, 2014.
DOI: <https://doi.org/10.14816/sky.2014.25.3.101>
- [14] Y. M. Lim, "The effects of parental child-rearing attitudes and peer relationships on children's mobile phone dependency and use type", *Human Ecology*, vol. 23 no. 2, pp. 163-174, 2014.
DOI: <https://doi.org/10.5934/kjhe.2014.23.2.163>
- [15] Y. T. Jung, S. S. Kim, "Impact of Perceived Parenting Styles on Depression and Smartphone Addiction in College Students", *Acad Psychiatry Ment Health Nurs*, vol. 25, no. 1, pp. 127-135, 2016.
- [16] S. J. Chang, S. W. Song, M. A. Cho, "The effects of mobile phone dependency, perceived parenting attitude, attachment to peer on school life Adjustment of middle School Students", *Youth Studies*, vol. 18, no. 12, pp. 431-451, 2011.
- [17] H. Y. Koo, "Cell Phone Addiction in Highschool Students and Its Predictors",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vol. 16 no. 3, pp. 203-210, 2010.
DOI: <https://doi.org/10.4094/jkachn.2010.16.3.203>
- [18] S. H. Jang, K. D. Cho, "Effects of Depression Scale, Interaction Anxiety and School Adjustment on Cellular Phone Addiction of Teenagers", *The Korea Contents Society*, vol. 10 no. 11, pp. 285-293, 2010.
- [19] D. P. MacKinnon, J. L. Krull, C. M. Lockwood, "Equivalence of the mediation, confounding and suppression effect", *Prevention Science*, vol. 1, no. 4, pp. 173-181, 2000.
DOI: <https://doi.org/10.1023/A:1026595011371>
- [20] S. J. Jang, S. W. Song, and M. A. Cho, "The effects of mobile phone dependency, deceived parenting attitude, attachment to peer on school life adjustment of middle school students", *Youth Studies*, vol. 18, no. 12, pp. 431-451, 2011.
- [21] S. Livingstone, L. Hadden, "Risky experiences for European children online: Charting research strengths and research gaps", *Children and Society*, vol. 22, pp. 314-323, 2008.
DOI: <https://doi.org/10.1111/j.1099-0860.2008.00157.x>
- [22] S. Y. Yang, Y. S. Park, "A prediction model of cellular phone addiction tendency among adolescents", *Home Economics Association*, vol. 43, no. 4, pp. 1-16, 2005.
- [23] H. G. Lee, "Exploration the predicting variables of the addictive mobile phone use of teenage. Comparison 20 and 30 ages", *Youth Studies*, vol. 16, no. 1, pp. 117-153, 2009.
- [24] C. Yen, T. Tang, J. Yen, H. Lin, C. Huang, S. Liu, C. Ko, "Symptoms of problematic cellular phone use, functional impairment and its association with depression among

- adolescents in Southern Taiwan”, *Adolescence*, vol. 32, pp. 863-873, 2009.
DOI: <https://doi.org/10.1016/j.adolescence.2008.10.006>
- [25] B. J. Jung, “The Influence of Perceived Parental Rearing Attitudes and Quality of Peer Relationship on Cell Phone Using Behavior in Primary School Students”, Department of the Graduate school Daegu National University, Master Thesis, 2009.
- [26] M. J. Kwak, “A Study on the Utilization of Mobile Phone Using Youth and Addictive Using”, Department of the Graduate school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Master Thesis, 2004.
- [27] J. Y. Kim, Ch. Y. Kyung, “Mediating Effect of Aggres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Practice and Violent Behaviors in Adolescent”, *Youth Studies*, vol. 14, no. 5, pp. 169-197, 2007.
- [28] B. N. Kim, H. I. Choi, “Effects of Study Overprotective Parent's Raising Attitude on University Student's Smartphone-Addiction :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control”,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vol. 29 no. 1, pp. 1-25, 2013.
- [29] J. Nelsen, C. Erwin, “Parents who love much: How good can learn to love more wisely and develop children of character”, Reseville, CA: Prime. 2000.
- [30] G. B. Han, “Effects of Perceived Childhood Parental Care and Overprotection on Depression of Female College Students: Mediating Roles of Self-Esteem and Dysfunctional Beliefs”,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 26 no. 2, pp. 427-448, 2014.
- [31] J. H. Kwon, E. H. Lee, “Predicting Game Addiction in Adolescents: An Application of Discriminant Function Analysis”, *Health Psychology*, vol. 10, no. 1, pp. 95-112, 2005.
- [32] M. S. You, M. K. Kwon, “The Comparative Study on Mother's Rearing Attitude and Communication among Mother and Student between Mobile Phone Addiction Group and Non-addiction Group: Middle School Students”, *Korean Parent Child Health*, vol. 14, no. 2, pp. 76-83, 2011.
- [33] K. Ch. Sook, “The Effects of Addictive Cell-phone Use of Adolescence on mental health”, *Youth Culture Forum*, vol. 30, pp. 8-29, 2012.
- [34] K. S. Lee, H. R. Ahn, K. H. Lee, “Factors related to the overuse of mobile phone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vol. 20, no. 3, pp. 271-280, 2011.
DOI: <https://doi.org/10.12934/jkpmhn.2011.20.3.271>
- [35] Y. H. Lee, “Mediation Effect of Depress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lementary School Student's Family Strength and Mobile Phone Overuse”, Department of the Graduate school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Master Thesis, 2013.
- [36] S. H. Jang, Y. J. Park, “The Relations among Teenagers' Mental Health, Self-Control, and Self-Esteem according to their Mobile Phone Addiction”, *Korean Educational Forum*, vol. 8, no. 3, pp. 25-41, 2009.
- [37] J. H. Ha, B. Chinb, D. H. Park, S. H. Ryu, J. Yu, “Characteristics of excessive cellular phone use: Psychological, behavioral, and health correlates”, *Addiction Research and Therapy*, vol. 15, no. 3, pp. 309-320, 2008.
- [38] B. S. Man, “The effects of perceived parenting style and peer relationship satisfaction on addictive use of cellular phone and depression for middle school students”, *Youth Studies*, vol. 21, no. 11, pp. 271-290, 2014.
- [39] M. L. Ybarra, C. Alexander, M. J. Mitchell, “Depressive symptomatology, youth Internet use, and online interaction: A national survey”, *Adolescent Health*, vol. 36, pp. 9-18, 2005.
DOI: <https://doi.org/10.1016/j.jadohealth.2003.10.012>
- [40] J. S. Kim, “Self-Esteem, Depression, and Impulsivity of Adolescents with the Overuse of Mobile Phone.”, Department of the Graduate school Dankook University, Master Thesis, 2004.
- [41] H. G. Lee, “Exploration the Predicting Variables of the Addictive Mobile Phone Use of teenage Comparison 20 and 30 ages”, *Youth Studies*, vol. 16, no. 1, pp. 117-153, 2009.
- [42] J. H. Ha, B. Chin, D. H. Park, S. H. Ryu, J. Yu, “Characteristics of excessive cellular phone use in Korean adolescents”, *Cyberpsychology and Behavior*, vol. 11, pp. 783-784, 2008.
DOI: <https://doi.org/10.1089/cpb.2008.0096>
- [43] M. Toda, S. Ezoe, “Multifactorial study of mobile phone dependence in medical students: Relationship to health-related lifestyle, Type A behavior, and depressive state”, *Preventive Medicine*, vol. 3, no. 1, pp. 99-103, 2013.
DOI: <https://doi.org/10.4236/ojpm.2013.31012>
- [44] B. G. Kang, S. H. Jung, “Risk and Protective Factors Affecting Mobile Phone Addiction in Adolescence: With a Special Focus on the Comparison by Gender”, *Youth Studies*, vol. 21, no. 8, pp. 213-241, 2014.
- [45] H. S. Kim, S. M. Bae, M. H. Hyun, “Predicting Mobile Phone Addiction in Adolescents”, *Health Psychology*, vol. 12, no. 2, pp. 383-393, 2007.
- [46] S. H. Jang, K, D, Cho, “Effects of Depression Scale, Interaction Anxiety and School Adjustment on Cellular Phone Addiction of Teenagers”, *Contents Society*, vol. 10, no. 11, pp. 285-293, 2010.
- [47] M. R. Song, S. Y. Kim, “The Relationship among Peer Attachment, Ego-Resilience and Mobile Phone dependency in middle School Students”, *Youth Culture Forum*, vol. 32, pp. 66-89, 2012.
- [48] S. Y. Yang, Y. S. Park, “A Prediction Model of Cellular Phone Addiction Tendency among Adolescents”,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vol. 43, no. 4, pp. 1-16, 2005.
- [49] M. Sanchez-Martinez, A. Otero, “Factors associated with cell phone use in adolescents in the community of Madrid(Spain)”, *Cyberpsychological and Behavior*, vol. 12, no. 2, pp. 131-137, 2009.
DOI: <https://doi.org/10.1089/cpb.2008.0164>
- [50] C. Y. Woo, H. H. Chung,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the related variables of Adolescents' Delinquency”, *Youth Studies*, vol. 20, no. 6, pp. 147-168, 2013.
- [51] Y. S. Seo. “Testing Mediator and Moderator Effects in Counseling Psychology Research: Conceptual Distinction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Health Psychology*, vol. 22, no. 4, pp. 1147-1168, 2010.

- [52] M. K. Kim. "Relationships on Parents' Authoritative Parenting Attitude, Adolescent's Emotional Bonding with Parents and Cellular Phone Addiction : The Mediating Effect of Impulsiveness", *Family Resource Management* vol. 17, no. 2, pp. 1-18, 2013.
- [53] J. Y. Park, G. A. Kim, C. H. Hong, "The Relationships between Adolescents' Cellular Phone Use Motivation, Peer Relationships, Emotional Factors and Cellular Phone Addictive Use", *Clinical Psychology*, vol. 31, no. 1, pp. 151-169, 2012.
- [54] M. Y. Hue. "A Study for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Inventory for Parenting Behavior Perceived by Adolescents",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 [55] S. H. Lee., H. S. Kim., U. Y. Nae. *A Study on the Use of Cell Phones and Their Influence on the Utilization of Youth*, Samsung Life Institute for Public Health and Mental Health Sciences, 2002.
- [56] K. I. KIm., J. H. H. T., Won. Simple Diagnostic Examination, *Central aptitude study*. vol. 12, no. 4, pp. 37-41, 1984.
- [57] H. Y. Koo, E. J. Kim, "Cell Phone Addiction in School-Age Children and Related Factors", *Child Health Nurs* vol. 21, no. 1, pp. 55-63, 2015.
DOI: <https://doi.org/10.4094/chnr.2015.21.1.55>
- [58] Statistics Offic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2014 Juvenile Statistics, 2014.
- [59] H. J. You,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Experience of Abuse for Early Adolescent, Depression, Aggression, Social Withdrawal, and Mobile Phone Dependency", *Youth Studies*, vol. 21, no. 12, pp. 417-446, 2014.
- [60] O. S. Hyeon, H. A. Kang, "The Influence of Fathers' Child-Rearing Involvement of Medium-sized Cities in Korea and China upon Young Children's Leadership", *Council for Children & Rights*, vol. 19 no. 4, pp. 663-685, 2015.
- [61] W. W. Hale, V. D. Valk, R. Engels, W. Meeus, "Does perceived parental rejection make adolescents sad and mad? The association of perceive parental rejection with adolescent", *Depression and Aggression,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vol. 36, pp. 466-474, 2005.
DOI: <https://doi.org/10.1016/j.jadohealth.2004.04.007>
- [62] K. H. Kim, S. Y. Roh, "ITs relationship with smartphone addiction, parenting attitudes and resilience on adolescents".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3 pp. 582-590, 2016.
DOI: <https://doi.org/10.5762/KAIS.2016.17.3.582>
- [63] S. A. Park, K. W. Park, "The mediating effect of self-differentiation between college student's family functioning and smart phone addiction",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8, no. 4 pp. 325-333, 2017.

우 재 희(Jea-Hee Woo)

[정회원]



- 2001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문학석사)
- 2012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문학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부산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

사회복지 실천, 정신보건사회복지, 알코올중독